

차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그도



전도선언과 불교의 이상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진리의 수레를 굴리기로 결정한 장소가 녹야원이었다는 것은 설명할...

다. 그래서 한 곳으로 두 사람이 가지 말고 오직 한 사람씩 유행하라고 당부한다. 비구 개개인은 수행에서 오는 즐거움에 탐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도구로 인간세상을 교화하는데 존재 의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셋째 방법론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해야 한다는 것은 목적도 훌륭해야 하지만 수단도 정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잡아함경> 제13경에는 부루나존자가 수로나국으로 전도를 떠나기에 앞서 부처님을 찾아뵙게 된다. 이때 부루나 존자는 부처님께에 맞아 죽더라도 결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안을 사람으로 편안하게 하고, 제도 받지 못한 사람을 제도하며, 그들을 열반으로 인도하겠다고 맹세한다. 이에 부처님께서 부루나 존자를 칭찬하며 격려하는데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넷째 조리에 맞게 표현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리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는

비구들이, 그대들은 이미 해탈을 얻었다. 이제 사람과 하늘의 이익과 안락,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는 미래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법을 전하려 떠나거라. 다른 마음으로 갈 때 같은

“나도 전법위해...” 사상 첫 전도선언

불국토 건설 · 술선수범 정신 담겨

길을 두 사람이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하느니라. 이치에 따라 조리와 표현을 갖추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법을 전하라. 원만 무결하게 청정한 실천을 설하라. 중생들 가운데는 번뇌가 적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하면 악에 떨어질 것이나 법을 들음으로써 성숙해질 것이다. 비구들이, 나도 이제 법을 전하기 위하여 우루벨라의 병창촌으로 가리라”

것은 고, 무상, 무아의 가르침에 알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원만하고 완전무결하게 청정한 실천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살생, 부도, 간음, 망어, 소유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한다. 당시의 수행자들이 지켰던 인도 전통의 규범이었다.

여섯째 설사 중생들의 근기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은 그들이 법을 듣게 되면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기에 따라 다양한 비유와 설화 등을 빌어 설법하는 것이다.

일곱째 부처님 자신도 기지존(명정존)으로 가서 열심히 법을 전하겠다는 것은 권위가 아닌 술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불교 시대에 불상대신 부처님의 평발을 불교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은 맨발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교화하다 평발이 되신 부처님의 정신을 영원토록 계승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종교적 실천기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추구하셨던 이상이 바로 전도선언에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불자들이 특히 출가자들이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할 내용이다.

이상이 <잡아함경> 제39경에 나오는 전도선언문 전문이다. 세계종교 역사상 최초로 전도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상의 선언문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는 해탈을 얻어 아라한이 된 출가자들은 인간과 하늘(제와)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전도의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는 해탈을 체득한다는 것은 영겁의 윤회를 벗어날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입장에서는 인간과 하늘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전도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은 불교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출가자는 인간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산 32-2번지. 장계면의 넓은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산자락에 자리잡은 선관사. 주변 지형은 백학이 나는 형곡으로, 남덕유산 지맥인 깎아봉에서 수많은 하이 날아와 모이를 쪼아먹는 곳에 선관사가 들어서 있다.

15일 구불구불한 산길을 헤치고 도착한 선관사에서선 살법전과 수련관 건립 등의 건립불사가 한창이었다. 그러나 수백미터 위쪽에 자리잡은 대각선원은 19일 동안 거결제를 며칠 앞두고 이미 23명의 수좌들이 정진에 들어간 상태였다.

종무소에서 대각선원장 월성 스님을 친견하기에 앞서, 상좌인 주지 성진 스님을 만나 큰스님에 대한 이모저모를 여쭙었다.

“큰스님은 절 하기와 염불, 독경을 통해 망상을 정리하고 삼매를 체합한 후 화두를 잡으면 제일이면 화두가 타파된다고 하세요. 만약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세월만 낭비할 뿐 화두타파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대각선원에서는 결계 동안 가까운 신으로 등산조차 금지될 정도로 계율이 엄격하다고 한다. 오산채는 물론 초콜릿, 우유, 빵도 함부로 먹을 수 없다. 사시로는 음식에서 나오는 인연법도 허투루 여기지 않을 정도로 선원의 청규는 서랄할 같다. 이렇게 3년간 공부하면 많은 약습이 떨어지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성진 스님의 말이다.

주지 스님의 대화가 끝난 후 중화당에서 월성 스님을 친견했다. 온화한 미소가 시골 할아버지 같은 월성 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수를 내건 정진을 강조한다.

“옛날에는 조계 기풍에서도 염불은 기초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업연(業緣) 많은 중생은 머리를 깎아도 망상이 많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아만심이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절을 통해 침화하고, 계행을 철저히 닦아 수행의 근거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스님의 경험에 따르면 절은 망상을 제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수천 배를 하다보면 망상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지고, 저절로 하심(下心)이 된다. 그래서 월성 스님은 절 하기와 염불 정진을 집조족, 번뇌와 업장을 녹이는 배추밭 갈매기 예지주비유한다.

배추밭에 잡초가 없다면 배추는 잘 자라게 된다. 이때 배추 씨앗은 자성불(自性佛)이다. 다견의 윤회를 통해 자란 집조족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힘든 고행도 소용이 없다. 수많은 전생의 수행을 통해 득력(得力)한 상태가 아니라

월성스님은?

절수행·염불정근·화두선 겸행 선사

“절 하기와 염불, 독경 등 기초수행을 통해 득력(得力)하면 화두 참구가 훨씬 빠르다.”

20여년간의 절 수행과 나무 석가모니불·염불정근을 기초로 화두선 수행을 맺기게 마무리 한 선사이면서도 일반 신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월성 스님. 1955년 충북 보은군 회복면에서 출생한 스님은 21세 때 상운 노사를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스님은 처음 절 수행을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인유(人憂)를 뒤엎었는데, 10년 동안 절을 해서 부처님 세계를 보지 못하러 스스로 떠나겠다고 다짐했다.

월성 스님은 45세가 되기 전까지 하루 1만2천번 기도를 5~6년씩 3년에 걸쳐 하는 등 하루 평균 3천번의 절을 하며

염불·독경하는 고행을 해 신도들을 놀라게 했다. 스님은 31세에 인천 용화사 조실 전강 선사로부터 ‘이 뭐꼬’ 화두를 받았지만, 본격적인 화두 참구는 36세에 성통사 조실 청화 스님을 은사로 모신 뒤 염불선으로 득력한 후인 46세부터 본격화했다. 아곡고 스님의 화두 참구는 49세에 경흥스님 회상인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큰 결실을 맺었다.

이후 스님은 제자 양성을 위한 도량 건립 불사에 온력을 다하고 정진하면서 화두도 화두를 놓지 않고 있다. 현재는 서울 상계동, 남양주, 송탄에 장건한 같은 이름의 사찰 ‘선관사’ 네 곳과 대각선원에서 수좌들을 지도하고 있다. 25명의 출가상좌가 있으며, 이중 14명이 득구대승신이다.

투철한 참회·계행으로

면, 몸과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득력해야 한다. 득력이 되면 자성불은 저절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때 화두는 타파된다. 참선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스스로 지치고, 가르침도 받을 수 없다.

스님은 45세가 되기 전까지 20여년간 하루 1만2천번 기도 5~6년씩 3년에 걸쳐 실시하는 등 거의 매일 3천번 절하기를 한 초인적인 원력을 보여주었다. 100일씩 나눠 300일씩 하는 1만2천번 기도를 통해 망상을 제거하고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때 1만2천번 기도는 반야심경 22편, 천수경 121편



가까이서 뵈

월성스님(장수 선관)

절삼매로 무아경지 맛 보

염불삼매면 33천 대천세계에

화두 타파하면 절대세계 체험

독송, 참회의 절 3천배, 선도를 위한 절 3천배 등으로 진행되었다. 스님은 보리를 한 말 쌓아놓고 보릿가루 한 컵을 마시며 24시간을 견뎠다. 한 말이면 100일을 먹을 수 있었는데, 소변과 대변은 열흘에 한번만 보아도 몸에 이상이 없었다.

그때 스님은 절 삼매에 빠져 허우적임 1만2천배를 해도 1분을 했는지, 한 시간을 했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신도

들이 공양을 들고도 해도 며칠째 모르기도 했다. 스님이 계속 ‘석가모니불’만 부르며 절하다가 비를 거머쥐어 걸어나오면 신도들이 ‘스님 돌아가신다’며 평평 울기도 했다. 이때 돌아가실 것처럼 정진하던 모습을 지켜본 신도들도 따라서 열심히 수행했다. 한 다 지금은 노인이다. 단 선관사의 신심 깊은 우바세, 우바

아들이다. 내가 3천배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상행이 남아 뭇된 스님의 가사지력만 보아도 싫을 때가 있었지만, 1만2



◇ 목숨을 내건 용맹정진만이 생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월성스님은 ‘큰 서원이 큰 열매를 맺는다’고 말한다.

서북토종오가피농장.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토종오가피농장에서는 오직 유기농법으로만 오가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판매하고 있습니다.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쭈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 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어왔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